

# 필수의료 안정적 제공 '맞손'

### 전북도, 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예수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의료인력 확보·도민 의료복지 향상 위해 인재육성 시범사업 추진

전북도가 도내 삼급병원들과 손을 맞잡고 우수 의료인력을 육성·확보해 도민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꾀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27일 도청 회의실에서 조봉업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전북대학교병원장, 원광대학교병원장, 예수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필수의료과 인재육성 시범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결핵과 등 6개 필수계 진료과목뿐 아니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작업환경의학과, 예방의학과 등 6개 지원계 진료과목 전공의들을 육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 협약에 따라 전북도와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예수병원은 앞으로 12개 진료과목 전공의들에게 1인당 월 100만원의 육성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3년간 모두 11억 7,600여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북도와 3개 병원이 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처럼 시범사업에 나선 것은 도내 청년 인재 유출 방지와 도민들의 타 지역 의료 이용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불편을 해소하는 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뜻을 모으게 된 것이다.

전북 지역 출신 의대생은 졸업 후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수도권을



전북도는 27일 도청 회의실에서 조봉업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전북대학교병원장, 원광대학교병원장, 예수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필수의료과 인재육성 시범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선호함에 따라 그동안 도내 필수진료과 의사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인 실정에서 각 병원들과 도 보건당국이 의료인력 확충에 고심해 온 사안이다. (2022년 전북 총인원 : 소아청소년과 25%, 외과 57%, 핵의학과 50%, 산부인과·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 0%) 전북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예수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 필수진료과 전공의의 육성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지역의료안정망을 확충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3년 동안 필수진료과 인재육성 시범사업을 시

행하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은 도민들에게 양질의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행정기관과 수련병원이 맺은 협약이어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조 부지사는 또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필수 의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도록 도·수련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 지역의료의 안정망 확충을 위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도록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 전북도, 광역 지자체 대상 규제혁신 성과 평가 3관왕 달성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행정안전부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규제혁신 관련 평가에서 연말달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3관왕을 달성했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과 주민 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각각 특별교부세 1억 원과 5천5백만 원을 확보했다.

도내 기초지자체에서는 정읍시, 남원시, 고창군이 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출범이후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의 지방규제



사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서 수여식

혁신 전담팀(TF) 운영, 법령 등에 의한 규제와 비법규적 수단에 의한 사실상 규제의 개선 노력 및 성과 등을 종합 평가했다.

전북도는 △규제애로 해결을 위한 행안부, 국조실 등 중앙부처와 긴급회개회, △규제개선 과정에 도민참여 확대, △기업 관련 규제에 발굴 및 개선 노력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로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규제애로를 개선한 점이 돋보였다.

또한, 부처협의를 통해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체류기간 연장 문제도 해결했다. 2023년부터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3월에 투입하고 성실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을 10개월 이내로 연장 가능해져 농촌 현장의 일손부족 해소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이 같은 규제혁신 성과가 1기업-1공무원 제도 시행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도정의 자구노력과 맞물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기업의 창의 증진과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혁신으로 전북에서 다양한 기업의 성공 신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도,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종합대상'

### 주거복지 확대 공로 '1위' 쾌거

전북도는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해 열린 '제5회 주거복지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주거복지 분야 발전에 공헌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수상내역 1위에 해당하는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는 주거복지 분야의 모범을 선도하고 기여한 기관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와 제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시상식에는 15개 기관(지자체 11, 공공기관 4), 12개 민간단체, 11명의 개인 등 총 38개가 수상했다. 전북도는 종합대상을 수상해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중에서 전체 1위를 달성했다.

전북도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지원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을 통한 경제·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도는 정부의 주거정책에 대응하고 도민에게 질 좋은 주거복지



제5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우수사례보고회 & 협약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거복지팀을 신설하고 정담인력을 배치했다. 주거공급 실태 및 요구사항 조사 등이 반영된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정비도 마쳤다. 또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을 가구당 2,000만원 이내, 최대 6년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과 전북형 재해주택 원스톱 복구비 지원, 청년수당 지원 등 실효성이 높은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만족도 평가에서 90% 정도가 '매우 만족'으로 응답할 정도로 도민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거복지분야의 종합대상을 수상해 매우 기쁘고 보람된다"고 수상 소감을 밝히며, "전북도는 안주하지 않고 모두가 따뜻한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성과 공유·교류

### 전북도, 성과공유회 가져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올해 도내 조성된 예비 청년마을 10개팀을 대상으로 청년마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마을간 교류 활동을 위해 마련했다.

상반기 청년 마을은 그간 활동성과를 발표하고, 사업종료 이후에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속 계획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또한, 하반기 청년마을과 사업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면서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했다.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는 청년마을을 발굴해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도 자체 사업이다.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공모를 진행해 10개 단체에 개소당 4천만 원을 지원했다. 상반기 선정된 5개 청년마을은 12월 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전주시 '문화통신시협동조합'은 시간은행을 조성해 청년의 성장과정과



2022년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성과공유회

시간을 경제적·사회적 가치로 확장하고, 청년과 주민이 상생하는 지역 순환 경제시스템을 구축했다. 정읍시 '청정지대'는 구량마을 농가 레스토랑 조성, 농산물 판매 라이브커머스, 공동체식량 함양교육 등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했다.

남원시 '쓰임 사회적 협동조합'은 폐복재 등을 활용한 목공예 업사이클링과 지역 문화탐방, 바자회 등을 통해 청년과 지역간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했다.

김제시 '농촌을 보고 배우다'는 청년 농업인,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연합 플리마켓 등을 개최해 청년들의 소득창출 구조를 형성하고, 지

역 농산물을 매개로 주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장수군 '장수청년산사공'은 청년생스쿨(청년재능나눔), 청년사장님(창업문화초점), 청년공유주택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등 청년 자립을 위한 기반 조성과 지역에서 청년의 역할을 확대했다.

이밖에 하반기 선정된 5개 청년마을인 △익산시 '문화예술공동체 미담보담협동조합' 및 '사각사각', △남원시 '같이연가치기계협동조합', △장수군 '장수군청년네트워크협의회', △고창군 '해리포터즈'는 2023년 8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